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사람들 중 아무도 저에게 교회를 함께 가자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적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릴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하면 찾는게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약하고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주변에서 말하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기독교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들은, 저에게 잘못된 선입견과 교회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만 키워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곳 펜스테이트로 유학을 온 뒤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지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삶들이 계속되어갔습니다. 공허한 외로움과 뜻 모를 우울함은, 제가 이곳에 온 목적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 고독함, 공허함 과 무기력. 그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하고 신실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보며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믿음 없는 믿음과 신념 없는 신념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지 일년이 지나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크리스천에 대한 선입견과 이미지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주일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금요모임에서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그리도 부정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것을 느꼈고, 아직은 견고하지 못하지만, 구원의 믿음으로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모든일에 일희일비 하고 불안해 했던 생활들이 얼마나 초점이 맞지 않는것 이였는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것은, 여태것 이유없이 받아드리던 일들이 하나씩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것 이였습니다. 제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은 넌지시 제가 아직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어, 제가 다시 삶을 바로 새울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학업이나 일떄문에 좌절할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무너질때, 스스로 조급함과 지혜롭지 못함으로 주저하고 있을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예전처럼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을 통해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어둡고 캄캄한 제 안을 조명하사, 저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행으로 열매맺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나와서 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흔들리고 교회에 마음붙이지 못할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따뜻하게 저를 보듬어준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없이 표류하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이리도 신비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